

회원사 동정

한국원자력연구소

베트남 달랏 대학(UDL)과 기술 협력 양해각서 체결

- 양국간 협력 증진 기대, 베트남 원전 프로젝트 참여 주춧돌 -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 박창규)는 베트남 달랏 대학(University of Dalat, 이하 UDL)과 공동 연구 및 교육훈련, 기술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박창규 원자력연구소장은 4월 20일~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도양홀)에서 펼쳐진 '2006 원자력 체험전'에 UDL의 Nguyen Huu Duc 총장을 초청, 21일 오전 10시 30분 코엑스 아셈홀 202호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이번 양해각서 교환은 지난해 8월 원자력연구소를 방문한 Nguyen Huu Duc 총장이 양 기관간 협력을 제안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오명 당시 과학기술 부총리의 베트남 방문시 박창규 소장이 UDL을 답방,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했다.

원자력연구소와 UDL은 양해각서에서 연구자료 공유와 연구원 교환, 과학 및 교육 관련 프로젝트의 공동 연구 개발에 합의할 예정이다. UDL 내에 '한-베트남 아카데미 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베트남간 정보 및 인적교류, 기술협력 등에 대한 상호협력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베트남 아카데미 센터를 중심으로 한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베트남 원자력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연구소는 베트남이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 베트남 고위 원자력 정책 인사들에게 한국의 원자력 기술 자립 정책과 경험, 한국 표준형 원전(KSNP)에 관한 기술 등을 전수하기 위해 세미나 개최 및 원자력 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에 관한 정보 자료 인력 교류, 훈련 과정 제공 등 다각도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은 오는 2017년까지 1,000MW급 원전 2기를 건설할 예정으로 한국을 비롯 러시아와 프랑스, 일본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지난 1958년 설립된 UDL은 베트남 명문 대학중 하나로 1만30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 방사선보건연구원

"아시아 지역 국가간 비상의료체계 확립, 협력강화"

지난 3월 23일~24일 양일간 한국수력원자력(주) 방사선보건연구원 원장 김종순 박사(내과 및 핵의학 전문의)는 일본 NIRS(National Institute of Radiation Science; 일본 국립방사선의학연구소) 주관 세계보건기구 산하 WHO-REMPAN Regional Workshop on Radiation Emergency Medical Preparedness and Response in Western Pacific Asia에 초청받아 참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구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사선비상의료 체계가 낙후 되어 있는 서태평양아시아 지역(Western Pacific Asian Region)의 방사선사고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긴밀한 비상의료 협력체 구축과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 아시아 참가국 간의 방사선비상의료에 관한 기술 및 정보 교류 강화와 자국 내 비상의료담당자 교육훈련을 맡을 지도자 양성교육 강화를 위한 국제

적수준의 교육과정구축과 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김중순 원장은 국내 방사선사고 대응 비상의료체계, 훈련 및 교육시스템 등 활동 상황을 소개했으며, 아시아 지역의 국가간비상의료대응체계 확립 및 활성화를 위한 국가간 긴밀한 협력관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고 행사 참석에 대해 “이번 회의의 또 다른 성과로 서태평양지역의 방사선사고시 의료 및 정보 교환 등 긴밀한 국가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방사선 비상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으며 의미를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방사선 비상의료전문가를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지도자 양성교육을 WHO와 아시아지역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구축하는 한편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방사선 비상의료 부분에서 취약한 서태평양아시아 국가에 자국 내 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했다는 면에서 이번 행사의 중요한 의미로서 평가받고 있다.

행사에서 제안사항으로 일본 NIRS가 우선 초기 비상의료교육훈련에 관한 자원 및 기술적 지원을 맞기로 잠정적으로 합의 하였으며, 기타 참여국가자격등 세부 사항은 계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참여 기관들은 방사선 비상진료 분야에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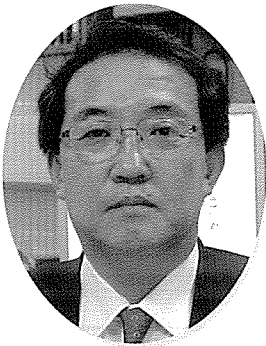
유수 방사선진료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REMPAN 지정 국가 및 기관들은 미국(REAC/TS), 일본(NIRS, RERF), 프랑스(Curie Institute), 러시아(IBP) 등이 으며, 방사선보건연구원은 2004년부터 WHO-REMPAN 지정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국가 및 기관도 세계적으로 방사선 응급 진료에서 앞서는 곳으로 우리나라 방사선 보건연구원(RHRI)과 원자력의학원의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KIRAMS), WHO-REMPAN 비상의료 담당자, 일본(NIRS, RERF, Hirioshima대학, Nagasaki대학), 중국(National Institute for Radation Protection), 필리핀(Qurino Memorial Medical Center, Department of Health) 등이 참여했으며 해당 기관장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구의 위상을 한번 더 알 수 있게 했다.

* WHO-REMPAN(Radiation Emergency Medical Preparedness and Assistance Network)조직은 체르노빌 사고(1986년)후 국제적으로 비상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방사선사고 시 해당국가에 실질적인 의료지원 및 권고를 적극적으로 지원 하기위해 세계 보건기구(WHO)에서 조직한 세계 유수기관 간의 방사선 비상진료 네트워크 이다.

국립암센터

신임원장에 유근영 교수 임명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28일 국립암센터 원장에 유근영(51세)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를 임명하였다.

신임 유근영 원장은 1978년 서울대학교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주임교수, 대한암학회 이사, 한국유전체 역학연구회 회장, 아시아-태평양암예방기구 부회장, 아시아 코호트 콘소시움 공동의장 등을 맡고 있으며, 서울의대 초대 기획실장, 국립암센터 건립추진자문위원회 위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지원평가단 질정보관리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